

유일-한정

N-만

유사 문법 → N-밖에

앞의 대상이 하나일 경우에는 유일함을 나타내며, 둘 이상일 경우에는 수량의 한정을 나타낸다. 뒤의 내용은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쓸 수 있다. 유일함을 나타낼 때는 `오직, 다만, 단지`와 같이 쓰여 의미를 강조해 주기도 한다.

예) 지갑에 카드와 신분증은 있는데 현금남 없어요.

N-밖에

강조형 → N-밖에는

유사 문법 → N-만, N-말고(는)

앞의 대상이 유일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 `이외에는, 말고는`의 뜻이다. 뒤에는 반드시 부정 표현인 `안, 못, 없다, 모르다` 등이 쓰인다. 그러나 `-이다`의 부정형인 `아니다`는 쓸 수 없다.

예) 내가 할 줄 아는 음식이라고는 라면밖에 없다.

N- 밖에 와 N-말고(는) Karşılaştırma

문법	기능	의미
N- 밖에	유일-한정	유일
N-말고(는)	포함	제외 유일

예) 이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.

(‘너’가 단지 유일한 대상임을 나타내어 ‘아무도’ 같은 미지칭의 대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‘-밖에 없다/모르다’의 형태로 사용해야 자연스럽다)

예) 이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은 너 말고(는) (아무도) 잇는다.

(너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상이 없음을 나타내어 ‘아무도’라는 미지칭의 대상이 있어야 하며 종종 생략된 형태로도 나타남.)

Kaynak: 김진호, 이태환, 김선희, 이수연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. 박이정